

WEBVTT

00:00:26.621 --> 00:00:27.538

안녕하십니까?

00:00:27.638 --> 00:00:29.776

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.

00:00:29.876 --> 00:00:33.879

불판에 구워 먹는 고기는
1cm 미만이 대부분입니다.

00:00:34.783 --> 00:00:37.085

대형마트에서 파는
일반적인 고기 두께가

00:00:37.185 --> 00:00:39.855

0.6cm 정도이기도 합니다.

00:00:40.409 --> 00:00:42.913

너무 두꺼우면 익는 속도도 늦고

00:00:43.013 --> 00:00:47.325

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
있어서 테이블 위 불판에서

00:00:47.350 --> 00:00:50.504

직접 구워 먹는 방식에서는
불편하기 때문입니다.

00:00:51.234 --> 00:00:54.085

반면 스테이크용 고기는
최하 1.5cm,

00:00:54.185 --> 00:00:57.318

일반적으로 한 2, 3cm
정도 됩니다.

00:00:57.418 --> 00:01:01.846

센 불에서 단시간에
구워낸 후 접시에 담아서

00:01:01.946 --> 00:01:04.294

나가는 것이기 때문에
두꺼워도 됩니다.

00:01:04.460 --> 00:01:07.603

아니 두꺼워야 육즙과
소고기의 풍미를

00:01:07.772 --> 00:01:09.802

충분히 즐길 수 있기도 합니다.

00:01:11.096 --> 00:01:13.704

대형마트에서 파는
소고기가 두꺼워진다는 건

00:01:13.804 --> 00:01:17.303

우리가 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에
변화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.

00:01:18.371 --> 00:01:23.186
참고로 이마트 한우 등심 매출 중
스테이크가 차지하는 비중이

00:01:23.286 --> 00:01:30.876
2014년 5%, 2015년 7%,
2016년 10%에 이어

00:01:30.976 --> 00:01:37.935
2017년 1, 2월 기준으로
22%로 매년 상승세가 뚜렷합니다.

00:01:38.953 --> 00:01:42.453
현대백화점의 설날 소고기
선물 세트 판매 비중에서도

00:01:42.553 --> 00:01:46.297
스테이크는 2015년 7.8%에서

00:01:46.397 --> 00:01:51.218
2017년 13.6%로
증가세를 보였습니다.

00:01:52.248 --> 00:01:55.449
소고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
돼지고기도 바뀝니다.

00:01:56.018 --> 00:02:01.129
돼지 등심을 두께 2.5cm의
스테이크용으로 팔기도 합니다.

00:02:01.301 --> 00:02:03.969
목살을 스테이크용으로
팔기도 하고요.

00:02:04.069 --> 00:02:07.931
대형마트의 고기 매대는
스테이크 전용존으로

00:02:08.031 --> 00:02:12.194
속속 리뉴얼되고 있고 심지어
스테이크용 고기를 구매한 후

00:02:12.337 --> 00:02:15.972
조리 비용을 내면 바로 구워줘서
채소와 소스를 곁들여

00:02:16.108 --> 00:02:17.670
매장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

00:02:17.770 --> 00:02:21.118
grocerant 방식도
계속 도입되고 있습니다.

00:02:21.218 --> 00:02:25.702
고기 판매대의 변화 이유는
식문화의 라이프스타일이자

00:02:25.802 --> 00:02:28.425
소비 트렌드의 변화 때문입니다.

00:02:28.525 --> 00:02:32.320

한국인이 선호하는
고기 소비 방식은 불판 위에서

00:02:32.474 --> 00:02:36.669

구워서 먹거나 찜이나 국을
만들어서 먹는 것이었습니다.

00:02:36.769 --> 00:02:38.668

당연히 대형마트의 고기 판매대도

00:02:38.805 --> 00:02:42.053

이런 소비 방식에
근거해서 운영되었습니다.

00:02:42.419 --> 00:02:45.887

하지만 3, 4인 가구가
계속 줄어들고

00:02:46.059 --> 00:02:50.135

1,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
변화가 필요했습니다.

00:02:51.084 --> 00:02:54.272

개인주의적 소비 성향의
확산으로 회식도 줄고

00:02:54.372 --> 00:02:58.117

혼밥, 혼술의 확산처럼
혼자서도 잘 먹는 사람들이

00:02:58.217 --> 00:03:01.780

늘어가는 것도 고기 소비에
변화를 만들었습니다.

00:03:01.880 --> 00:03:04.847

SNS를 통해 일상을
공유하는 사람들의 경우

00:03:04.947 --> 00:03:08.084

무엇을 먹는지를 공유하는
것도 중요합니다.

00:03:08.184 --> 00:03:14.186

이마트 마켓분석팀에서
2013년~2016년 상반기까지

00:03:14.286 --> 00:03:20.112

블로그와 트위터 등 3300만여 건의
SNS 게시물을 분석한 결과

00:03:20.212 --> 00:03:24.560

소고기와 함께 언급된 연관 단어 중
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

00:03:24.660 --> 00:03:27.345

스테이크와 등심이었습니다.

00:03:27.445 --> 00:03:30.509

확실히 2, 30대들에게
소고기는 스테이크가

00:03:30.649 --> 00:03:34.114

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해도
과언이 아닌 셈입니다.

00:03:35.281 --> 00:03:38.028

그런데 왜 하필 스테이크일까요?

00:03:38.819 --> 00:03:43.173

이건 한국식으로 먹느냐, 서양식으로
먹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.

00:03:43.273 --> 00:03:48.065

오히려 다 같이 모여서 먹느냐,
혼자 먹느냐의 차이가 더 큼니다.

00:03:49.383 --> 00:03:53.383

혼자서 고깃집에서 불판 위에 고기를
구워 먹기란 쉽지 않습니다.

00:03:53.547 --> 00:03:55.572

그런 식당도 별로 없어요.

00:03:56.112 --> 00:03:58.238

집에서 먹을 때도 혼자서 먹는데

00:03:58.338 --> 00:04:00.967

불판에서 고기를 굽는 거
쉽지 않습니다.

00:04:01.846 --> 00:04:05.931

스테이크는 간편하고 쉬운
요리고 한식에서 고기를 굽거나

00:04:06.084 --> 00:04:11.005

찜하는 건 어렵고 복잡한 요리라고
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

00:04:11.105 --> 00:04:13.496

스테이크는 프라이팬
하나면 충분하죠.

00:04:13.596 --> 00:04:16.524

그냥 잘 굽기만 해도 끝입니다.

00:04:17.626 --> 00:04:20.701

소스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
않거니와 굳이 만들지 않고도

00:04:20.868 --> 00:04:22.777

파는 소스를 먹어도 되고요.

00:04:22.877 --> 00:04:26.253

소금과 후추만으로도 충분히
맛을 낼 수도 있습니다.

00:04:27.587 --> 00:04:31.669

캠핑 문화의 확산도 스테이크용
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

00:04:32.423 --> 00:04:35.609

초기 캠핑장에서는
삼겹살이 대세였다면

00:04:35.709 --> 00:04:38.678

이제는 두껍게 썬
돼지고기를 바비큐나

00:04:38.820 --> 00:04:41.396

스테이크로 먹는 게 급증했습니다.

00:04:42.122 --> 00:04:44.684

아울러 요리에 관심을 가지는
사람들이 늘어난 것도

00:04:44.784 --> 00:04:47.211

스테이크용 고기 소비에
영향을 줬습니다.

00:04:47.793 --> 00:04:50.757

2, 30대들은 요리가 필수입니다.

00:04:51.666 --> 00:04:55.486

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도
그렇지만 쿡방 열풍의 영향으로

00:04:55.586 --> 00:04:58.488

요리를 일상 문화로
받아들인 세대입니다.

00:04:59.274 --> 00:05:03.536

온라인몰에서 빠른 배송을 내세운
신선식품 배송 서비스가

00:05:03.714 --> 00:05:08.477

확산되는 것도 스테이크용
고기 소비를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.

00:05:09.496 --> 00:05:14.576

신선식품 배송의 확산은 요리를 더
일상화시키는 데 영향을 줍니다.

00:05:14.676 --> 00:05:17.293

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게
당연해진 시대,

00:05:17.393 --> 00:05:20.991

쉽고 간단하게 요리하는
방법이 선호되다 보니

00:05:21.091 --> 00:05:25.342

고기 요리에서 스테이크는 유리한
고지를 점하기 쉽습니다.

00:05:25.442 --> 00:05:28.040

쌀 소비 감소도 스테이크
소비에 영향을 줍니다.

00:05:28.215 --> 00:05:32.472

쌀밥과 국, 반찬을 다 갖춰야
밥 먹는 거라고 여기는

00:05:32.652 --> 00:05:34.740

이들은 점점 줄어듭니다.

00:05:35.402 --> 00:05:39.036

여전히 40, 50대나

그 이상들은 꼭 쌀밥을 먹어야

00:05:39.195 --> 00:05:42.169

밥을 먹었다 하지만

10대, 20대들에게 쌀밥은

00:05:42.269 --> 00:05:46.319

하나의 선택 요소에

불과한 것이지 필수가 아닙니다.

00:05:46.760 --> 00:05:48.885

쌀 소비가 줄어든다는 건

00:05:48.985 --> 00:05:52.410

한식의 비중이 낮아진다는

이야기이기도 합니다.

00:05:52.510 --> 00:05:57.315

고기를 먹더라도 한식으로만

먹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인데

00:05:57.415 --> 00:05:59.161

스테이크는 한식에서 벗어난 이들이

00:05:59.296 --> 00:06:02.011

가장 먼저 선택할 수

있는 방식입니다.

00:06:02.965 --> 00:06:05.796

스테이크는 고기 중심으로

한 끼를 해결하는

00:06:05.940 --> 00:06:08.474

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.

00:06:09.228 --> 00:06:12.355

밥하고 반찬 준비할 필요 없이

그냥 스테이크 하나와

00:06:12.521 --> 00:06:15.195

채소 조금만 있으면

한 끼 요리가 됩니다.

00:06:15.695 --> 00:06:18.545

쌀 소비는 줄어들다 보니

이걸 늘리려고,

00:06:18.645 --> 00:06:22.319

아니 줄어드는 걸

좀 멈추려고 정부가 나서지만

00:06:22.419 --> 00:06:26.136

고기 소비는 굳이 나서지

않아도 계속 늘어갑니다.

00:06:27.234 --> 00:06:31.646

고기 소비 증가의 최대 수혜자는
스테이크용 고기가 될 겁니다.

00:06:31.746 --> 00:06:35.051

그리고 미국산,
호주산, 캐나다산 같은

00:06:35.151 --> 00:06:38.209

수입산 소고기도 수혜자가 됩니다.

00:06:38.309 --> 00:06:41.853

한국의 대형마트에서 파는
소고기 두께가 두꺼워지는 게

00:06:41.953 --> 00:06:44.929

미국 축산업자의 미소가 된다는 건

00:06:45.029 --> 00:06:49.518

그리 복잡할 것 없는 아주
단순하고 명확한 나비효과입니다.

00:06:49.618 --> 00:06:53.739

더 이상 한우에 대한 맹목적
우월주의가 사라지고 있고

00:06:53.839 --> 00:06:58.273

보다 합리적으로 수입산 소고기를
선택하기도 해서입니다.

00:06:58.373 --> 00:07:02.203

고기 두께의 변화,
고기 구워 먹는 방식의 변화에서

00:07:02.303 --> 00:07:06.081

우리는 1인 가구 증가라는
인구통계학적 변화가 주는

00:07:06.261 --> 00:07:11.509

식문화의 변화도 읽고 SNS를
통해 일상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

00:07:11.609 --> 00:07:14.923

조금 더 사진발 받는
근사하고 우아해 보이는

00:07:15.023 --> 00:07:17.736

라이프스타일이 선호되는 변화도 읽고

00:07:17.836 --> 00:07:20.641

스테이크 소비 확산이
미국산 소고기 입지를 강화하는 데

00:07:20.795 --> 00:07:25.147

영향을 준다는 것도 읽고
개인주의가 확산되는 사회가

00:07:25.247 --> 00:07:29.763

우리의 밥상을 이렇게 바꾸는지까지도
읽어낼 수 있습니다.

00:07:30.698 --> 00:07:35.811

이렇듯 세상에는 사소한 단서에서
많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.

00:07:36.090 --> 00:07:39.816
트렌드를 읽는 안목을 가지면
세상의 변화 속에 숨겨진

00:07:39.916 --> 00:07:42.913
다양한 이유와 배경을
알 수 있습니다.

00:07:43.566 --> 00:07:46.294
이걸 통해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에

00:07:46.430 --> 00:07:48.916
조금 더 긴밀히
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.

00:07:49.821 --> 00:07:51.376
사실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

00:07:51.476 --> 00:07:54.445
집요한 관찰이기도 하면서
재밌는 일입니다.

00:07:54.583 --> 00:07:58.413
바로 우리 일상에서
우리가 하는 행동의 이유를 찾고

00:07:58.586 --> 00:08:00.734
그 속에 담긴 기회를 보고

00:08:00.834 --> 00:08:04.282
또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
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

00:08:04.382 --> 00:08:06.146
지금까지 김용섭이었습니다.

00:08:06.246 --> 00:08:07.507
고맙습니다.